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0. 짐승의 표 666의 실상

2014. 05. 0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두 번째 짐승의 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했는데,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하여 연구할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17,18]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17절 말씀 설명을 시작하다가 시간이 되어 끝났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의 실상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짐승의 표라고 할 때에 이미 공부한대로 짐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예언적 표상으로 계시한 짐승이 나라를 표상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말은 나라의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해석했지요. 이미 몇 번이나 인용한 말씀이지만 확인하는 뜻에서 다시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지요.(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7: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말씀은 네 짐승이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이 그냥 한 나라에 일어나는 네 왕을 상징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23절을 보면 짐승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이 구절이 짐승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해석해주지요.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나라이기는 한데, 어떤 성질의 나라인지도 중요합니다. 즉 왕국인지, 공화국인지, 나라의 정치체제가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17과 23절은 그것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네 왕이라고 했고, 23절에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가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은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표입니다. 그 짐승은 왕국입니다. 짐승의 표는 왕국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2.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간단하네요. 짐승의 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습니까. 크레딧카드다, 소셜 넘버다, 바코드다 등등 말입니다. 요즘은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군요. 나라의 표인데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표라는 것이네요.

답: 예, 짐승의 표라는 말은 하면서 표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무를 모르면서 열매가 무엇인지 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았으니까 표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의 성질을 확실히 짚고 가야합니다. 이미 우리가 13장 전체의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면서 짐승의 표를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3.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니까?

답: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나라는 전쟁 없이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상합니다. 예언적 표상으로 바람이 전쟁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바다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이 나라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여러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을 표상하는 것도 이미 공부한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있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더구나 이 짐승은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가 게르만민족 이동으로 망하면서 로마 영토에 건국된 나라들을 표상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유럽에서 전쟁 없이 건국된 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나라는 마흔두 달, 곧 1260년간 동일 왕권으로 통치된 나라입니다. 고대의 전설적인 나라들 말고는, 세상에 동일 왕권으로 이렇게 긴 기간 통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유럽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교권국인 교황권만이 그렇습니다.

넷째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가, 동일 권세로 다시 일어나서 더 유명하고 영향력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바티칸 시국의 상태입니다. 이미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치유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교황권 국가는 부활하였고 그 후에 미국이 정식으로 대사를 교환하여 국교를 트자 온 세상이 국교를 터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상태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다섯째로 이 나라는 성경의 하나님께 참람된 말로 훼방하는 나라입니다. 참람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든지, 하나님과 등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수장은 자기를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부했지요.

여섯째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입니다. 중세동안 이 나라가 진리

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많이 죽이고, 십자가군 전쟁을 하게하고 또 그들로 이단 색출을 하여 처형한 나라입니다.

일곱째로 이 나라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식민지를 많이 둔 나라의 성질인데, 이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토 식민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식민지는 참 많습니다. 미국에만도 그 국민이 6천만이 넘습니다. 남미지역에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 정교연합국의 그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덟째로 이 나라는 경배를 받으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국가라는 뜻이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최고 지도자를 경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4. 그러면 그 나라의 표는 무엇입니까? 한 때는 크레딧카드라고 하고, 옛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민증을 발급할 때에 어떤 신흥기독교에서는 도민증이 짐승의 표라고 받지 못하게 하는 소동을 벌인 일이 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배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속덕거리는데, 지금 말씀으로 연구하니까 배리칩이 결코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사람들은 짐승의 표의 정체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니까 성경적으로 명쾌한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성경 속에서만 전개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건인가? 아무 사건이라도 갖다 붙이면 예언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꿰다 맞출 수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니엘 8장에 작은 뿔의 실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갖다 맞추어도 퍼즐이 꼭 들어맞지 않는데도 대강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그것이 예언된 사건인지 유사한 사건인데 꿰맞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아주 주의하며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5. 예, 그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지금까지 살핀 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유럽에서 일어나서 1260년간 전성기를 누리는 중에 그 정권이 망하게 되었다가 회복되어서 온 세상이 따르는 나라로서 정교일치의 국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는 경배를 받기 위하여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의 성질은 이 모방한 삼위일체 조직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경배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매개체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짐승의 표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배리칩이나, 기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매

개체로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 자체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바로 이 표를 주는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 그 종교를 믿고 순복하며 경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짐승이 경배를 받기 위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삼위 일체를 모방했다면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를 모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아, 예,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요.(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표를 찾아볼 시간인데, 그 전에 계시록의 기록한 내용들을 좀 더 살피고 이것은 맨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다른 내용이라니요? 무엇입니까?

우선 계13:15,16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을 살피면서 확인해봅시다.

[계13:15,16]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조직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당장 알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것은 교회라고 했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구원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요. 것처럼 짐승의 우상도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교회 같은 조직을 뜻합니다.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조직이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직은 정권과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받도록 합니다.

7. 정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런 표현들이 계시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144000인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사상이 자기의 사상이 된 것을 나타낸다고 7장에서 공부했다고 생각되는데, 14장에서 다시 그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이마는 바로 이런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 사상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의무로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의미에는 개의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미 없이 그냥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그 표를 주는 짐승인 국가의 정신과 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곧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인 줄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경배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지요?

8.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인다는 것은 사형한다는 의미인줄 알지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답: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생활하면서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짐승의 표 문제를 경제문제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인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설명할거리가 없습니다. 죽이면 끝이니까. 그런데 매매에 대하여서는 경제문제, 상업문제 등 할 이야기가 많지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을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의 우상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상태를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연관시켜서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경제문제를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 그럴것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설명들이 다 짐승의 표의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설명들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배리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떠들어야 진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예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열심히 이런 문제들을 장황하고 그럴듯하고 두렵게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이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든지 목적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짐승을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9. 그러면 이제 666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의 정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답: 먼저 성경을 읽고 이야기합시다.

[계13:17,18]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읽어야 합니다. 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곧 수치(數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장황하게 공부한 대로 짐승은 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는 그 표를 주는 왕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수치로 풀이할 때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으로 풀이하는데 집중합니다. 계시록이 상징적 언어가 주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름과 그 이름의 수”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이름이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로서 666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1941년(소화 16년)에 발간한 천주교 서간과 묵시록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666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레시아어나 헤브레아어의 수자들은 가끔 어떤 사상을 표시한다. 여기 있는 666이라는 수는 과연 무엇을 가리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교회를 몹시 핍박하든 네로황제를 가리치는 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악하고 악하고 악한 것을 가리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 둘째 의견이 옳은 듯싶다. 교황의 도를 의미한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전혀 허무한 의견이다.”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7이 하나님 숫자이니까 7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은 마귀의 수이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존재로 악하고 악하고 악한 존재를 뜻한다고 막연히 풀이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또한 네로의 환생이라고 말합니다. 네로의 전체 이름을 적고 라틴어 수치로 풀면 정확하게 666이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교회의 엘렌 화이트의 이름 전체를 적어놓고 라틴 수치로 풀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스탈린의 이름도 전체를 적어놓고 라틴 수치로 풀면 666이 된답니다. 이렇게 666이 되는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풀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석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라의 이름을 숫자로 풀이한 수입니다. 네로나, 화이트나 스탈린이나 악하고 악하고 악한 어떤 존재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허황된 해석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 나라의 언어 즉 국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로 그 나라의 이름을 적어놓고 헬라어의 수치로 푸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명에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 나라의 이름이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를 나타내는 일상적인 이름이 됩니다. 이유는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이 나라를 나타내는 여러 명칭들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666

이탈리아 교회 (ιταλικα이탈리카 εκκλησια에클레시아) ι=10, τ=300, α=1, λ=30,

$$ι=10, κ=20, α=1$$

$$ε=5, κ=20, κ=20, λ=30, η=8, σ=200,$$

$$ι=10, α=1 =666$$

라틴교회(라틴어 사용자) (λατεινος라테이노스) λ=30, α=1,τ=300, ε=5, ι=10,

$$ν=50,ο=7, σ,ς=200=666$$

라틴왕국(ἡ λατινη라티네 βασιλεία바실레이아) η=8 λ=30, α=1, τ=300, ι=10, ν=50,

$$η=8,$$

$$β=2, α=1, σ=200, ι=10, λ=30, ε=5, ι=10, α=1 = 666$$

α=1, β=2, γ=3, δ=4, ε=5, ζ=7, η=8, θ=9, ι=10, κ=20, λ=30, μ=40, ν=50, ξ=60, ο=70 π=80, ρ=100, σ=200, τ=300, υ=400, φ=500, χ=600, ψ=700,

ω=800

숫자가 없는 것, 6, 90, 900은 고대 헬라어 자모가 27자였는데, 그것에는
바우=6, 코파=90, 삼피=900 가 있었다.

이 나라는 지금도 국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그 나라를 나타내는 이름이 됩니다. 그 나라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교회라고 말해도 그 나라를 나타내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라틴 왕국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왕국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렇게 성경예언과 역사적 현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0.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주 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이제 표가 무엇인지 말씀하셔야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이 나라는 성경의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경배하게 하기 위한 표도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와 비슷하게 모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경배하는 표가 무엇인지 알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당장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31:12~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 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11. 안식일이 무엇이라니요?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로 주신 날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날입니다.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표로 모방하겠습니까? (아, 예, 날짜이군요.)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는 예배를 위

한 낱자로 주어집니다. 그 낱자가 어느 낱자인지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스스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 예, 목사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쉽지 않은 문제를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나 애청자들이 다 알아듣고 깨닫는 경험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세에 속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